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11/27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21:15-17 (16);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행 20:28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마 9:36

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요 10:10b-11, 16

10b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 장 10 절과 11 절과 16 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과, 그분께 다른 양들(이방인 믿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을 이끌어 10 절에 언급된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한 교회)가 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을 밝혀 주셨다.

첫째로,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마 9:36).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시달리는 양으로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졌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분께 보내심을 받은 분에게 열두 사도를 세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0:1-6).

둘째로,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는데(벧전 5:4),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목양하고 계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신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한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들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요 21:15-17). ...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173-1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벧전 2:25).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실 때, 이 목양은 외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존재 곧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벧전 5:1-4).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 곧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심지어 아가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적과 궁극적인 완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를 언급한다.

아가 1 장 7 절 상반절은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만족을 위해)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안식을 위해) 쉬게 하시나요?”라고 말한다.

목자는 추구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셨다.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아 1:8 하) 목자장이신 주님 아래에는 많은 다른 목자들이 있다. 많은 목자들이 천막, 곧 그들이 사는 곳 옆에서 그들의 어린 염소들을 먹인다.

아가 2 장 16 절은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은 백합화인 그분의 추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목양하셔서 자라게 하신다.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176-1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2, 49 장

11/28 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골 1:28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마 28:19-20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행 20:28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엡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5:17

17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장로들은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강의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들을 함양하고 양육하는 가르침을 준다.

에베소서 4 장에 따르면 목자 및 교사는 한 범주이다. 이것은 목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또한 교사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사는 또한 목자이다. 그러나 소위 몇몇 교사라는 이들은 목양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들은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목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목자는 교사이고, 교사는 목자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이고 돌봄으로써 양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해야 한다. ...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장로가 있든, 그들만으로 빈틈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목양을 위해 모든 형제자매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2 권, 주님의 증거를 위한 모든 세대들, 4 장, 58-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가르친다. 집회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학개서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그 책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은 그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가 생소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와 교통함으로써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목양이다. 약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생명이 아직 어린 사람들 모두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매우 필요하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때마다, 그들은 건축된다. 결국 이런 종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들도 또한 유용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목양을 하라고 격려한다. 자매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매들은 여러 해 동안 주님 안에 있었고 교회생활 안에 있었으며 많은 특별 집회와 훈련에 참석했었다.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께 무언가를 받았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분발시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때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2 권, 주님의 증거를 위한 모든 세대들, 4 장 59 쪽)

네 종류의 은사 있는 사람들 중에(엡 4:11) 처음 셋인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은 목양에 달려 있다. 요한복음 21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을 확증한다. 이러한 주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기능은 목양에 달려 있다. 목양이 없이는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장로들은 목양을 강화하고 목양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딤후 3:2 하, 5:17 하), 이러한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과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서신서들에서 가르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3 장 2 절은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습관임을 의미한다. 어떤 장로들은 조용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 특별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헛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고봉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모데전서

5 장 17 절에서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라고 명령했다(고전 1:10). 우리 모두는 같은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148,1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2 권, 주님의 증거를 위한 모든 세대들, 4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11/2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21, 25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시 23:3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요 14:16-18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고후 1:3-4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히 13:17
17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속자이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벧전 2:21),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다. ... 혼은 우리의 내적 존재이며 참된 인격이다.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벧전 2:25)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19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목자는 양 때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며,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필요를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 몸의 목자가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인 혼의 목자이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이 있으며, 영은 우리의 내적기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로 우리의 혼을 보살핌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살피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몸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분명 몸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준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문제는 혼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에 문제가 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혼 안에서 방랑하는 이들이며,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살피 줄 목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혼을 보살피시는 목자께서 계신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신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주님의 목양과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의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자. ... 주님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혼 안에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위로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여러 차례 영으로 돌이키는 것에 관해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실상은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 후에도, 많은 것들이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다. 체험을 통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혼의 목자이시라고 말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 장 25 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몸의 목자이시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라고 말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양이 필요한 것도 우리의 혼이다. 이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며 또한 대개 우리의 영도 아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혼이다.

우리의 체험에서 가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표시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게 목자이셨음을 간증할 수 있다. 그분께서 목양하신 결과로,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지켜진다.

우리의 감정은 복잡해서 쉽게 동요한다. 이것은 특히 자매들의 감정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목양하시는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분의 목양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신다.

우리의 의지 또한 주님의 목양이 필요하다. 사람인 우리는 종종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워한다. 때때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정하는 일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결정할 때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목자께서 계신다. 주님의 인도와 안내는 주로 우리의 의지에 관계된다. 살아 계신 목자로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신다.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이것을 체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고 안내하신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197-1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5 권, 교회의 증가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유기적인 봉사, 3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4 권, 영문판, 315-321 쪽

11/3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5:2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때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벤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골 3:4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요 15:4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벧전 5:2)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을 요구한다(골 1:24).

문자적으로, 베드로전서 5 장 2 절에서 ‘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적은 떼’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며(행 20:28), 이 양 떼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적은 수이다(눅 12:32).

베드로전서 5 장 2 절에 따르면, 장로들은 다스리는 이들이 아니라 목자들이다. 목자는 이따금씩 양 떼를 다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양 떼에 관심하는 누군가의 다스림이다. ... 양 떼는 돌봄과 보호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려야 한다. 이것이 목양이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명령한다. 양 떼는 장로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어떤 의미에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도록 그분께 고용되었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30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5 장 2 절의 ‘감독하는 것(overseeing)’이란 단어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 전에 나는 감독하는 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잘하고 누가 형편없는지를 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나는 감독하는 것은 주로 필요를 살펴보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 목자는 ... 양 떼의 필요에 관심한다. 그가 살펴보는 것은 양 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목자는 양 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살펴본다.

베드로의 말처럼, 장로들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 감독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르는 것이다.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관념 또는 좋고 싫은 것을 따라 감독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갈망과 의도와 선호를 따라 감독해야 한다. 장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선택을 따라 교회를 감독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감독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 장 2 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살펴보라고 주의를 준다. 이것은 장로들이 장로 직분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부모와 같이 정성을 다해 살펴보아야 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301-303 쪽)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실지 인격인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고 말했다(벧전 2:25). 그런 다음 베드로전서 5 장 1 절과 2 절에서 그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의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의 이해와 신학과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게 되고,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거룩함이시고 의이시다. ‘하나님을 따라’는 최소한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성을 따라 어리고 약하고 뒤로 물러난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목자가 될 것이다.

목양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길이 없다. ...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목양해야 한다. 생명을 공급하는 참된 길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접촉함으로써 목양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150-1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2 장

12/1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6:11, 13

11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13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왕상 4:29

29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슬기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고전 6:3
3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현 세상의 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 25:15
15 관용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눅 15:4, 8, 10
4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8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10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 장 3 절부터 10 절까지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완전히 성숙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사도들의 입은 믿는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마음도 넓어졌다. 사도들은 넓어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었고,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그들의 빛나간 실지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잘못도 되거나 빛나간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고 넓어져야 한다.(고후 6:11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의심의 여지없이, 요셉(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은 성숙한 성도의 조성된 방면을 묘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이다. ...

타락하고 구원받고 부름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조성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완전한 것이 전혀없다. ... 요셉은 야곱의 성숙한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방면은 ...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한다.

이 완전한 방면은 목자이다. 아벨처럼 요셉은 목자였다(창 37:2). 이것은 성숙한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방면을 예표하는데, 이 생명은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한 목양하는 생명이다. 창세기 37 장에서 요셉이 먹이고 목양한 것은 양떼만이 아니었다. 비록 그는 두 번째로 어린 동생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내어 그의 형들을 목양하게 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양 떼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도 목양했다. 주 예수님도 목자로 오셨다(요 10:11).

비록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라 해도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으로 조성되셨으며,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가 된다. 바로 이 조성이 여러분에게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을 준다. 이것이 목양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께 목양하는 방면이 있으시다. 다른 이들에게 목양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더 많이 당부할수록, 여러분은 그들을 덜 목양할 것이다. 목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추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문제이다. 그리스도로 조성된 우리 존재의 부분이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부분이다. 나는 여러분의 그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우리는 누구도 목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다.

왕으로 다스리는 방면은 먼저 목양하는 방면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먹일 부담이 없다면 결코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다스리는 권위는 목양하는 생명에서 나온다. 결국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목양한 후에 다스렸다. 그는 형들을 목양하고 먹이도록 그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목자로 오셨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은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0 장에 계시되어 있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양 떼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원칙상 동일한 일이 창세기 37 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났다. 비록 그가 그의 형제들을 목양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죽였다. 요셉은 그러한 목양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주었다. 우리 안에 목양하는 생명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목양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양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며, 여러분을 ‘신령한’ 형제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 형제님, 제가 홀로 지내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제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관심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저를 죽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죽이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을 목양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0 장, 1493-14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0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사랑의 말씀, 1-3 장

12/2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24-26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한다. ...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방문할 때, 합당한 원칙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야 한다. ...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영과 분위기를 가져가서 다른 이들이 기도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임재와 분명한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해야 한다. ... 우리 자신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을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2 권,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8 장, 906-90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새로 구원받거나 회복된 사람이 즉시 합당한 상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 약한 이를 거둬서 접촉하는 데에는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하며 접촉할 때 사람들은 목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 교회는 목양을 통해 자란다. 우리가 새로운 이들을 돌보는 목양이 없이 복음 전파만 한다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해치고 손상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매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지만, 지금 그들 대부분이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자녀를 잃은 가족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녀를 합당하게 양육하기 위한 합당한 목양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오직 인도하는 형제들만이 목양의 일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부담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교통을 갖는 것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먹이는 부모이지만, 또 한 면으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의지할 때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고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대해 확신을 갖게 한다. ... 모든 지체는 반드시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순환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이들 중 몇몇이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 지와 별개로 우리에게 자신을 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호적인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열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느낌을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다. ... 목양을 할 때 ...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이들과 어떤 교통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야 한다. ... 우리가 어린 믿는 이들에게 간증하려면, 우리에게 (앞서 말한 모든 세부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더 취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2 권,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8 장, 908-9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2 권,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8-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1장

12/3 주일

아침의 누림

눅 15:11-14, 17-24
11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3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14 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17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찬송: 1221 (英) 선하신 목자 예수 (中:1062)

1 놀라운 목자 예수님 우리를 양우리서 건져내 푸른 풀밭에 인도해 주셨다네
(후렴)
오 교회생활 풍성한 양식 있네
하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 명해.
2 분열 속에 지쳐 주린 우리를 찾아내어 영으로,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네
3 예수는 우리의 풀밭 우리가 먹는 양식 다 함께 모일 때마다 풍성히 먹이시네
4 신선한 이슬 적시는 높은 산에 거하며 샘에서 맘껏 마실 때 목마름 사라지네
5 그리스도는 참 안식 누림과 보호이니 모든 양 주 임재 안에 안전하게 거하도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4:1-12;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2-63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The Kingdom of God a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Scripture: 로마서 14:1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Mark, msg. 15; What the Kingdom is to the Believers, chs. 1-3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947
churchinnyc.org/bible-study